

1.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2년 9월 24일(월)에 배포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성평등 통합사회를 만들어 갈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포럼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12년 9월 24일(월)

보도 날짜 : 2012년 9월 25일(화)

언론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eri2008@kwdimail.re.kr)

내용문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영 옥

(연락처: 02-3156-7131, 이메일: youngkk@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9월 25일(화) 오후 2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개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주제 :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포럼<input type="checkbox"/> 일시 : 2012. 9. 25.(화) 14:00~17:00<input type="checkbox"/>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input type="checkbox"/> 주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오는 9월 25일(화) 오후 2시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이 주관한다.
- 이 자리에 참석한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통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함께 성장하고 참여하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알차게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행사의 개최의의를 밝혔다.

<행사 개요>

-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데 기여해왔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둔화, 청년실업, 노인 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두, 최근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증가에 따른 안전 보장 요구 등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이번 행사는 올해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완료됨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2012년부터 적용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되었다.

- 포럼에서는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동 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며,
 -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정호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병창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조혜영 여성신문사 편집국장이 참여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이전과 다른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으로는
 - ①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 ② “여성의 건강권 보장”, “통일과 대외협력에서 참여 확대” 등 새 과제 부각
 - ③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 개발
 - ④ 계획의 이행성 확보를 위한 책무성 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 각 영역에서 다양한 신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이번에 발표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은 수정, 보완을 거쳐 11월 중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2월 중 제14차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붙임 2. 프로그램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의 수립 의의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

- *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여성발전 기본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동법 제8조)하여야 함.

-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15년이 흐르면서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의 금지 및 적극적 고용조치의 시행, 가정폭력 및 성폭력 특별법 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등 법·제도의 측면에서 성과가 컸음.
-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에 의한 생산인력 확보 필요성,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가정폭력의 비등으로 인한 불안과 체감안전도 급락, 일·가정 양립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높은 요구 등에 대응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4대 목표

□ 목표 1 : 여성의 일자리와 대표성 확보	- 남성에 비해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체된 경제활동,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여성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확립하여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자율성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목표 2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	-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목표 3 :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	- 일차적으로 여성과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던 돌봄 노동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남성의 돌봄권을 보장하여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4 : 성별 고정관념의 해소	-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극복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 감.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 7개 분야 - 30개 중과제 - 110개 소과제
- 7개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실현 등으로 나뉨.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 여성들의 다양한 욕구 반영
 - 경력단절 여성, 2030여성, 무자녀 여성, 1인 가구 여성, 한부모 여성, 결혼이주 여성, 탈북여성 등 각각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 발굴.
- “여성의 건강권 보장”, “통일과 대외협력에서 참여 확대” 등 새 과제 부각
-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 개발
 - 경직된 성역할은 남성의 잠재력과 선택도 제한. 남성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한 성평등 구현
 - 일본의 이쿠맨, 스웨덴의 프랜디 등처럼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버지상 구현.

[유럽의 남성관련 성평등 이슈들]

- 핀란드와 다른 서구국가들에서 논의되는 남성과 젠더 평등의 주제에 연계된 잘 알려진 5가지 주제는 첫째, 남성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그리고 남성의 부모임, 둘째,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가정 폭력, 셋째, 남성들과 건강, 넷째, 남성들과 이혼, 다섯째, 소년들과 학교에 관한 젠더 평등 정책이다
- 오스트리아의 남성과 젠더 평등 정책은 구체적으로 이혼한 남성과 아이들을 위한 ‘visiting cafes’, 예방적 보건에 초점을 둔 남성 건강에 관한 연구, 청년들의 아버지 역량 강화, 바람직한 아버지상과 남성 정체성

- 계획의 이행성 확보를 위한 책무성 관리 강화
 - 이제까지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난제를 풀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지표” 및 “성과관리” 도입

□ 신규 정책과제(안)들

<p>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희망직종 개발” 사업 실시 ▪ 비정규직 모성보호 개선 모성보호 이후 고용모니터링 ▪ 공기업의 업무배치와 승진모니터링 강화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복지기금 설립 ▪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확대 ▪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개선사업
<p>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에 대한 폭력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실시 ▪ 아동안전에 위한 지역돌봄 안전망 강화 ▪ 여성아동안전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네트워크 운영 강화 ▪ 지역단위 안전지수 개발·발표 ▪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집행력 강화 ▪ 여성폭력관련 피해자 지원체계 총괄기구 설치 ▪ 여성폭력방지 국가통계체계 구축 ▪ 여성폭력통계센터 설치
<p>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자녀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적용 ▪ 여성건강마을 시범운영 ▪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p>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의료광고 규제 ▪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식이장애 청소년 재활 지원 ▪ 성형수술시 의료진 설명의무 준수 ▪ 의료인 대상,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고양 ▪ (가칭)예술인복지법 제정 및 표준계약서 현실화 ▪ 청소년연예인에 대한 학습권 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 인권교육 실시 ▪ 가족단위 생태문화활동 지원

붙임 2.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시 간	내 용	
14:00~14:20	개회식	진 행 : 이택면 연구기획·평가팀장 인사말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환영사 :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사회 : 김용화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14:20~14:50	발 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안)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50~15:00	휴 식	
15:00~16:30	토 론	김정호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병창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조혜영 (여성신문사 편집국장)
16:30~17:00	종합토론 및 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정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